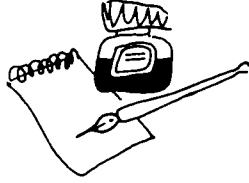


# 편집 후기



간행물 만드는 일이란 것이 다 그렇겠지만 발행인 자신의 글로써 만이 아닌 다른 분들의 여러 글들을 받아 실기위해서 발 동동거리며 맘졸이는 경우가 많다. 마감은 다가오는데 원고작성자로 부터는 감감무소식이고 기획사하고도 일정을 맞추어야 하고.

문득 두서없이 혼자 그냥 다 헤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네 지금 생활이 어디 그런가. 각기 다른 재능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만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리고보면 생활을 꾸려가는데 옛 사람들이 훨씬 자족적이고 독립적이었으나 그에 반해 인간간의 유대관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밀접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진다.

하나의 나사라도 빠져선 금방 삐걱거리버리는 지금의 우리 조직사회가 그에 걸맞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 휘청거리는 요즈음을 보며 뜨거운 여름속에 가쁜 숨을 쉬어야할 것 같다. <卿>

눈앞의 실리에 우선 집착하게 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젠 다 같이 좀더 넓고 먼곳을 바라 볼 수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인것 같다. 서로 내뭇 찾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웃을 잃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긍정적인 사고력을 잃는 것은 아닌 것...

이번 호부터 폭넓은 정보제공을 위해「방재와 보험」지를 증면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을 기대해 보며 옥고를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독자제현에 감사드립니다. <建>

##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폰트 등 문예작품

### □ 보낼 곳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 防災와保險

1989/여름호  
계간 • 비매품

<통권 제42호>

등록/ 바-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1989년 7월 1일  
인쇄/ 1989년 6월 25일  
발행겸 편집인/ 이상규  
인쇄인/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두람기획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직통 780-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